

답답한 속 좀 풀어요... 축제잖아요

통일고성명태축제 20~23일 거진항포구 일대

강원

가을의 깊이가 더해지는 바닷가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진다.

다소 거칠듯한 파도가 갯바위를 두르려대는 해안도로를 따라 느긋하게 달려 보자. 폭염이 휩쓸고 간 가을바다에서 호젓한 배사장을 거닐고 싶을 때 꼭 가고 싶은 곳. 배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항구에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아보고 싶을 땐 동해안 최북단 고성 거진항을 찾아 떠나자.

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없지만 거진항포구에는 벌써 드럼통 화덕에 타다타다 모닥불이 피어 오르고 있다.

이른 새벽 여명이 터오는 포구마다 북적거리며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부들의 삶의 결을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갯 잡아올려 펄떡이는 바닷고기들을 놓고 벌이는 새벽 포구의 시끌벅적한 흥정이 일상에 찌든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오래전에 있고 있던 열정이 새삼 떠올라 삶의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고성 거진항에서는 저물어 가는 10월을 아쉬워하는 이들을 위해 명태와 향포구 어촌문화체험 축제가 준비돼 있다.

국내에서 최고의 명태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고성을 비롯 동해안에서 잡히는 명태가 지방태이며 본고장이 고성군 거진항, 어민들의 희망으로, 우리들의 먹거리로, 사랑받아온 명태의 품어와 안전 조업을 기원하는 축제의 한마당.

◇ 바릴 것 하나 없는 축제 = 올해 제18회를 맞는 통일고성명태축제가 오는 10월 20~23일까지 펼쳐진다. 축제는 명태를 소재로한 체험행사와 레저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흥과 맛의 추억을 더한다.

명태 낚시 썰기, 명태 아가미를 켜는 관태대회, 명태할복대회, 얼음 속 황금명태 찾기, 명태 정량 달기, 명태 두호, 명태 OX게임, 명태구이 한마당, 인간 명태 걸기, 명태 탕 쌀기, 명태 요리 시사회 등 명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 특히 얼음 속에 얼려둔 명태를 얼음을 쪼아내어 파낸 다음 명태 입속에 넣어둔 경품을 받아가는 가족 단위 게임인 황금 명태 찾기가 가장 인기 좋다.

맨손 활어잡기, 화정량 달기, 맨손 활어 옮기기, 감성돔 낚시 체험, 수산물 경매 등 명태 이외의 해산물을 소재 삼은 행사도 열린다. 일반 관광객 에겐 맨손 활어 잡기가 아무래도 호기심이 끌리는 행사일 것이거나 낚시에 경험 있는 이들은 항구 안에 그물망을 치고 그 안에 양식한 감성돔을 풀어놓고 하는 감성돔 낚시 체험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어항 여행을 해본 이들은 한두 번 수산물 경매 현장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런 손동작이 재미있어 오래도록 지켜보곤 했던 그 수산물 경매를 직접 해보는 수산물 경매 행사도 연다. 맨손 활어 옮기기에서는 아무래도 산 문어를 맨손으로 옮기는 대회가 백미로 꼽히고 있다.

레프팅, 카약 무료체험과 플라야보드 시연, 오리배·카누 체험 등 다양한 레저체험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축제기간 동안 70인탑승이 가능한 명태 행운열차도 즐길만 하다.

명태풍물장터는 각종 수산물, 건어물, 젓갈류를 비교적 싼 값에 사갈 수 있는 장터다. 대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한결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여서 연일 사람이 붐빈다.

그외 풍어제, 난타, 팔도각설이, 중국기예단, 사물놀이 공연, 어선 불꽃놀이, 청소년 댄스 공연, 명태얼음 조각경연대회 등 수십 가지 행사가 고성 군내 곳곳에서 열린다.

이중 가장 높은 인기를 끄는 것은 어선을 타고 저기 통일전망대 앞까지 약 1시간30분에 걸쳐 선상 유람을 하고 돌아오는 어선 무료 시승회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이중 가장 높은 인기를 끄는 것은 어선을 타고 저기 통일전망대 앞까지 약 1시간30분에 걸쳐 선상 유람을 하고 돌아오는 어선 무료 시승회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이중 가장 높은 인기를 끄는 것은 어선을 타고 저기 통일전망대 앞까지 약 1시간30분에 걸쳐 선상 유람을 하고 돌아오는 어선 무료 시승회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어선에 올라보는 것 자체가 독특한 체험이거나 파도 치는 먼 바다로 1시간 이상 나가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어선 무료 시승회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풍량이 심한 날은 포구 내를 단 10분간이나 한 바퀴 돌아준다.



즐길거리
얼음속 황금명태 찾기
맨손 명태·문어 잡기
수산물 경매 체험

놀거리
레프팅·카약·명태 열차
통일전망대까지 선상 유람
무료로 즐길거리 가득
밤바다 위 불꽃놀이도

볼거리
난타·중국기예단
청소년 댄스·사물놀이
명태얼음 조각경연대회

먹거리
거진 전망대에서 일출 보고
황태찜에 북어국 한 그릇

살거리
수산물·건어물·젓갈류
직거래 장터로 저렴하게



평컨다이빙 대회.

도회지와 달리 완전한 압축된 검은 바다 위 하늘을 배경 삼은 해상 불꽃놀이도 도시민들이 환호하는 행사 중 하나다.

매일 아침 행사장에서 관광객들의 속풀이를 위해 5,000원씩에 북어국도 판다. 일찍 일어나 거진 등대에 올라 일출 맛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국민 생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 명태는 냉수성 어종으로 명태의 서식에 알맞은 수온은 3~4도, 회유성어종이다. 가을철 북태평양으로부터 남하해 9~10월에는 함경도 연안에 이르고 계속 남하하여 11~12월에 걸쳐 강원도연안 및 경북연안까지 회유한 후 산란을 마치고 2월 이후 수온 상승으로 다시 북상한다. 남북 분단이 되기 전에는 명태는 함경도 지역에서 많이 잡혔다.

전국 명태 어획량중 62%를 고성군의 각 항구에서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고성군이 제1의 명태고장임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러한 한 명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육상에서 키운 명태치어기가 처음으로 2015년 12월에 명태보호수면으로 지정된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 인근 해역에 치어 1만5000마리를 방류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명태 치어방류는 그동안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바다에서 사라진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첫 신호탄이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동해 명태를 국민식탁에 다시 올리겠다는 목표가 명태 인공종묘 생산 및 생태연구 기술과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러한 목표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보인다.

명태는 말 그대로 바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으로 저장법도 다양하고 손쉽다. 명태를 그대로 두면 상하기 때문에 내장을 다 빼내어 깨끗이 씻어 냉동하고 건조시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냉동과 건조를 하기 위하여 빼낸 내장에는 창란, 명란, 곤지 등과 아가미가 있는데 창란, 명란, 아가미는 젓갈류로 담그고 곤지는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뒤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서 곤지찌개 및 볶음용으로 사용하고 찢은 곤지는 명태찌개에 같이 넣고 끓이면 맛이 한결 구수하고 영양가도 높다.

북어는 명태를 빠른 시일내에 말려 명태살이 딱딱한 상태가 된 것이 북어이고, 얼음물에 담가 눈 속에 찬바람을 맞으며 오랜 기간 말린 것으로 살이 부드럽고 노란 북어가 황태다.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고성산 명태해장국이나 명태찜에 소주 한잔으로 차가운 기운과 답답했던 가슴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성 명태축제장이다.

명태축제는 신명과 재미를 극대화해 관광객을 만족시키고 문화관광 축제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양한 행사와 체험 거리가 준비돼 있는 명태의 고장 고성에서 좋은 추억을 쌓아 보길 바란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강원일보 이경웅기자 <사진제공=고성군>



맨손 활어잡기.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